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A Longitudinal Study of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Delinquency and Self-Esteem among Adolescents

부산대학교 아동·소비자·주거학과
강사 김희화
교수 김경연

Dept. of Child Consumer & Housing, Pusan National Univ.
Lecturer : Hee-Hwa Kim
Prof. : Kyong Yun Kim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delinquency and self-esteem among adolesc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97 adolescents attending middle schools in Pusan. The data was collected by longitudinal research design of 9 month interval. In first, second wave, the participants completed the delinquency scale and the multidimensional self-esteem inventory that includes home self, peer-related self, teacher-related self, academic-general self, physical appearance self, physical competence self, and personality self, respectivel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se causal relationships differed among subdimensions of self-esteem, 1)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elinquency and home self was bidirectional, 2)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elinquency and peer-related self, teacher-related self, academic-general self, and personality self was unidirectional, 3)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elinquency and physical appearance self, physical competence self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 문제의 제기

청소년은 신체적·성적으로 급속한 성숙과 자의식의 증대에 따라 자기나름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을 한다. 이 과정에서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이성적 판단보다는 호기심에서 좋지 못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은 심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원자인 부모와의 관계 못지 않게 또래 집단과의 동일시 및 또래집단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부모나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보다 또래 규범에 동조한 결과 사회적 규범에 위배되는 비행을 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축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의미하는 청소년 비행(소년법 제4조)은 비행자로서 낙인 찍힌자에 한정된 사건은 아니다. 청소년 비행은 어린 연령으로 확산되고, 학생 비행과 여자 비행이 증가하고, 학교내 폭력이 증가하고 비행 행위가 다양화 및 집단화되고 있다(권이중, 1996).

청소년 비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비행과 관련성 있는 변인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비행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낮은 자아존중감과 비행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심희옥, 1998; 장영실, 1985; 조정문, 1985; Edwards, 1996). 그런데 비행에 관한 연구는 단순한 상관관계 연구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비행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므로(곽금주, 윤진, 문은영, 1993) 비행과 자아존중감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해서도 믿을만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두 변인간의 인과관계는 종단적 접근 및 횡단적 접근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인과적 관계를 밝히기에 적합한 종단적 접근을 통해 이뤄진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비행이 서로에게 미치는 호환적 효과(reciprocal effect)를 밝히는데 관심을 두고 이뤄졌다. Kaplan(1976)은 7학년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초기 비비행자의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세집단으로 구분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의 비행이 증가함을 보고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임을 밝혀 주었고, 다시 그(1978)는 남자 비행자들의 지속적인 비행은 자아거부의 수준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Kaplan(1976; 1978)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비행을 하게 되고 비행을 통해 낮은 자아존중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Bachman(1974)이 10학년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 반의 시간 간격을 두고 자아존중감과 비행을 검사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비행과 자아존중감간의 호환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Owens, 1994; Rosenberg, Schooler, & Schoenbach, 1989)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의 원인임을 두 연구에서 밝혀졌지만 비행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Rosenberg 등(1989)의 결과에서만 유의하였다. 즉 비행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McCarthy와 Hoge(1984)는 7, 9, 11학년의 경우, 비행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나 자아존중감에 대한 비행의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함을 밝힘으로서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을 초래하기보다는 비행을 통해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경험한다고 밝힘으로써 Owens(1994)과 Rosenberg 등(1989)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과 자아존중감과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한 Wells와 Rankin(1983)연구와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 본 심희옥(1998)의 연구에서는 두 변인은 어느 쪽으로든지 유의한 인과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의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종단적 접근을 통해 보고된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비행과 자아존중감간의 인과적 관계가 직선적 관계인지, 호환적 관계인지, 아니면 상호 무관한 관계인지 혼란스럽다.

횡단적 접근에 의한 대부분의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비행의 원인으로 간주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의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신종순, 1990; 심응철, 1992; 심희옥, 1997). 특히 자아존중감의 다영역성에 대한 견해가 제기됨(Harter, 1982; Pope, McChale, & Craighead, 1988; Shavelson, Hubner, & Stanton,

1976)에 따라 비행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영역을 고려한 횡단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콕크주와 김근영(1997)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비행청소년군을 대상으로 Harter(1988)의 자기지각 검사 척도를 사용하여 비행에 운동능력, 학업적 능력, 사회적 수용, 자기가치감순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중고등학생과 비행집단 그리고 범죄집단을 대상으로 정원식(1968)의 자아개념 척도를 사용한 연구(심응철, 1992)에서는 비행을 판별하는 자아개념영역이 신체적 자아, 도덕적 자아, 가정적 자아, 사회적 자아로 나타났다. 나아가 Leung과 Lau(1989)는 7~9학년을 대상으로 다수의 척도에서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을 추출하여 비행에 대한 자아존중감 각 영역의 상대적 영향을 규명한 결과 낮은 학업능력 자아, 부모 자아 및 또래 자아는 비행의 원인이 되며 신체능력 자아와 사회적 능력자아는 비행을 통해 증가하는 자아존중감 영역임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의 영역성을 고려하게 되면, 자아존중감 영역중 비행의 원인이 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것과 비행이 자아존중감의 어떤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비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영역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횡단적 접근에 의한 연구는 단일 시점에서 이뤄진 연구로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특히 비행연구에서는 다음의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즉 자료수집에서 자아존중감은 조사실시 당시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비행은 연구대상자의 과거에서부터 조사시기까지 이뤄진 비행행동을 측정하므로, 시간적 순서에 따르면 비행이 자아존중감보다 앞서므로 비행이 독립변인이 되고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인이 되는 것이 타당하나 기존 연구는 오히려 역으로 인과적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횡단적 접근을 통해 이뤄진 연구결과를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비행과 자아존중감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기에 적합한 중단적 접근에 의한 선행 연구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횡단적 접근에 의한 연구결과를 신뢰하기란 어렵고, 두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자아존중감의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비행연령이 저연령화 되고 아동기와 청소년 초기의 비행이 이후 청소년 후기 및 성인기의 비행과 연관되어 있음(Loeber, 1982)에도 불구하고 국내 청소년 비행연구가 주로 고등학교 연령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음(콕크주, 윤진, 문은영, 1993)을 감안해 볼 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행연구도 요구되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시점에서 비행과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측정하고 9개월 후 다시 측정하는 중단적 접근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영역성을 고려하여 비행과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비행과 자아존중감간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비행으로부터 청소년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중학생 비행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비행과 영역별 자아존중감간의 인과적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2. 비행은 시간적 경과,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한 남녀중학교에 재학중인 1, 2학년이며 표본은 부산시 소재의 중학교 중 5개교를 임의 선정하고, 각 학교의 1, 2학년중에서 무선집락표집방법에 의해 추출되었다. 표본의 크기는 1차조사에서 550명이었으나 9개월 후 2차조사를 실시한 결과 546명으로 감소하였다. 1, 2차 조사를 통해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누락탈락된 표본(전학, 성명미기재자)을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497명 이었다. 연구대상자를 학년별로 살펴 보면 1학년이 236명(48%), 2학년이 261명

(52%)이었고 성별로 살펴 보면 남학생이 269명(54%), 여학생이 119명(46%)이었다.

2.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김희화(1998)가 사용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는 가정적 자아(6문항), 친구관련 자아(9문항), 성격적 자아(6문항), 신체외모 자아(7문항), 신체능력 자아(6문항), 학업 및 전반적 자아(10문항), 교사관련 자아(5문항) 등 7개 영역의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점수의 반응범위는 49~245점이다. 각 영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76~.90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1, 2차 자료 각각에 요인분석을 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후 varimax 방법으로 회전시킨 결과 1, 2차 자료 각각, 7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7개의 요인은 전체변량의 53.2%, 54.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비행

청소년의 비행을 측정하고자 기존의 비행척도(김정원, 1993: 정유미, 1997: 유혜경, 1986: 정대경, 1988: 조정문, 1985)를 참고하여 중학생의 비행행동으로 간주하기에는 부적합한 문항(오락실 출입, 가정에서 누구와도 말하지 않음, 미팅, 퇴학경험, 늦은 귀가)을 제외시키고 18문항으로 구성된 초기 척도를 제작하였다. 문항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현직 중학교 교사 3명에게 의뢰한 결과, 구성된 문항 중 중학생들에게 반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으로 지적한 문항(강간, 마약 흡입, 사창가 출입)은 제외시키고 중학생들의 행동 중 문제행동이라고 인정되는 문항(부모의 신용카드 사용, 사복을 가방에 넣어 다님, PC를 통한 음란물 접촉)을 추가하여 최종 18문항의 비행척도를 구성하였다. 응답은 최근 6개월 동안 경험한 행동의 정도를 나타내게 하였다. 응답

범주는 빈도를 고려한 등간 척도의 수준을 유지하고자 '없었다', '1-2회', '3-4회', '1개월에 1번이상'으로 하고 1점에서 4점으로 점수화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8~72점 이다. 두 번의 조사를 통해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각각 .72와 .7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비행과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고자 자아존중감 각 영역별로 다음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의 비행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Time 2의 비행을 종속변인으로하고 Time 1의 비행과 Time 1의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비행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을 밝히고자 Time 2의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하고 Time 1의 자아존중감과 Time 2의 비행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비행의 평균차이 검증을 위해 t-test와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비행과 영역별 자아존중감간의 인과적 관계

비행과 자아존중감간의 인과적 관계의 방향을 분석하고자 자아존중감 각 영역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의 비행과 자아존중감간에 인과적 관계에 대한 결과를 자아존중감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행에 대한 가정적 자아의 영향은 Time 1의 비행을 통제하여도 유의한 부적 영향($\beta = -2.98, p < .01$)을 미치고, 가정적 자아에 대한 비행의 영향도 Time 1의 가정적 자아를 통제해도 유의한 부적 영향($\beta = -2.46,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적 자아와 비행은 호환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낮은 자아존중감은 비행을 초래하고 비행은 가

〈표 1〉 비행과 자아존중감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인과적 방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 ²
가정적 자아 → 비행	T2의 비행	T1 비행 T1 가정적 자아	12.85*** -2.98**	.29***
비행 → 가정적 자아	T2의 가정적 자아	T1 가정적 자아 T2 비행	16.80*** -2.46**	.41***
친구관련 자아 → 비행	T2의 비행	T1 비행 T1 친구관련자아	13.71*** -.06	.29***
비행 → 친구관련 자아	T2의 친구관련자아	T1 친구관련자아 T2 비행	17.73*** -2.96**	.41***
교사관련 자아 → 비행	T2의 비행	T1 비행 T1 교사관련자아	13.38*** -.89	.29***
비행 → 교사관련 자아	T2의 교사관련 자아	T1 교사관련자아 T2 비행	14.09*** -4.16**	.33***
학업 및 전반적자아 → 비행	T2의 비행	T1 비행 T1 학업 및 전반자아	13.13*** -1.42	.28***
비행 → 학업 및 전반적자아	T2의 학업 및 전반적 자아	T1 학업 및 전반자아 T2 비행	20.65*** -2.27**	.50***
성격적 자아 → 비행	T2의 비행	T1 비행 T1 성격적 자아	13.41*** -.12	.28***
비행 자아 → 성격적	T2의 성격적 자아	T1 성격적 자아 T2 비행	18.37*** -3.59***	.43***
신체외모 자아 → 비행	T2의 비행	T1 비행 T1 신체외모 자아	13.56*** -.21	.28***
비행 자아 → 신체외모	T2의 신체외모자아	T1 신체외모 자아 T2 비행	18.31*** -.99	.42***
신체능력 자아 → 비행	T2의 비행	T1 비행 T1 신체능력자아	13.16*** 1.14	.27***
비행 → 신체능력 자아	T2의 신체능력 자아	T1 신체능력자아 T2 비행	23.98*** .22	.55***
자아존중감 전체 → 비행	T2의 비행	T1 비행 T1 자아존중감 전체	12.86*** -1.22	.29***
비행 → 자아존중감 전체	T2의 자아존중감 전체	T1 자아존중감 전체 T2 비행	21.49*** -2.56*	.55***

*p<.05, **p<.01, ***p<.001

정적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행에 대한 친구관련 자아의 영향은 Time 1의 비행수준을 통제할 경우 무의미하나 친구관련 자아에 대한 비행의 영향은 Time 1의 친구관련 자아를 통제해도 유의한 부적영향($\beta = -2.96,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낮은 친구관련 자아를 가진 청소년이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을 통해 청소년

은 친구관련 자아의 감소를 경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교사관련자아($\beta = -4.16, p < .01$), 학업 및 전반적 자아($\beta = -2.27, p < .01$), 성격적 자아($\beta = -3.59, p < .01$), 자아존중감 전체($\beta = -2.56, p < .05$)의 경우는 비행과 친구관련 자아간의 인과적 관계의 방향과 같았다. 따라서 낮은 교사관련 자아,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성

격적 자아가 비행의 예측요인이기보다는 비행을 통해 이들 자아존중감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 전체 점수를 가지고 비행간의 관계를 설명할때도 비행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의 경우, 비행과 자아존중감에는 어느 방향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행과 신체외모 자아 및 신체 능력자아간에는 직접적인 인과적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 모든 영역에서 Time 1의 비행은 Time 2의 비행에 Time 1의 자아존중감은 Time 2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을 많이 하는 아동은 시간이 경과해도 비행을 많이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시간이 경과해도 여전히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2. 비행의 시간적 경과,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차이

중학생의 비행정도가 시간적 경과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Time 1에서 Time 2로 변화함에 따른 비행의 변화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 = -2.24, p < .05$).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정도가 심해짐을 알 수 있다.

중학교 1, 2학년 및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행의 평균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Time 1, Time 2별로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에 의하면, 학년간 비행의 차이가 Time 1과 Time 2에서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t = -2.71, P < .01, t = -2.59, P < .01$) 중학교 2학년이 1학년보다 비

<표 2> 시간적 경과에 따른 비행의 평균점수에 대한 paired t-검증 (N=483)

시 기	평 균	표준편차	t값
Time 1	19.87	2.99	-2.24*
Time 2	20.18	3.35	

* $p < .05$

<표 3> 학년과 성별에 따른 Time 1과 Time 2에서 비행의 평균점수에 대한 t-검증

집 단	Time 1		t-value	Time 2		t-value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학년	1	19.51	-2.71**	19.79	3.26	-2.59**
	2	20.24		20.57	3.37	
성별	남	19.99	.79	20.50	3.46	2.14*
	여	19.97		19.85	3.17	

* $p < .05, **p < .01$

행정도가 심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비교를 해보면 Time 1에서는 비행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Time 2에서는 비행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t = 2.14, P < .05$). 따라서 중학생의 경우 초기에는 남녀간 비행의 정도차이가 없으나 점차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행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종단적 접근을 통해 비행과 영역별 자아존중감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고자 이뤄졌다.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9개월 간격을 두고 자아존중감과 비행을 두 시점에서 측정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과 영역별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비행과 가정적 자아간의 인과적 관계는 호환적 관계로 나타났다. 즉 가정적 자아가 낮은 청소년은 비행을 하고 비행을 하는 청소년은 가정적 자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행과 친구관련 자아, 교사관련 자아, 학업 및 전반적 자아 그리고 성격적 자아간의 인과적 관계는 직선적 관계로 나타났다. 즉 비행을 한 청소년은 이들 자아존중감의 감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행과 신체외모 자아 및 신체능력 자아간에는 인과적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비행과 가정

적 자아간의 호환적 관계이다. 낮은 가정적 자아는 비행을 조장하고 비행은 가정적 자아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결과는 비행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가정적 자아가 중요함을 함축하고 있다. 즉 비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적 자아를 증가시켜야 하고 가정적 자아를 증가시키는 것은 비행을 예방하게 된다. 이 사실은 비행연구에 관한 포괄적인 개관에서 청소년기 비행에 대한 최선의 예언 변인들은 가족변인과 연관되어 있다(Loeber & Dishion, 1983)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가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해 준다. 특히 본 연구가 만성적인 비행자라기보다는 청소년 초기에 비행을 시작하는 중학교 1, 2학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자아존중감 영역중 가정적 자아만 비행의 원인으로 나타난 결과에 주목해 본다면, 청소년 비행의 조기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구성에서 자아존중감의 증대를 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자아존중감의 영역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자아존중감의 증대를 통해 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가정적 자아존중감의 증대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친구관련 자아, 교사관련 자아,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성격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등 자아존중감의 대부분의 영역이 비행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의 원인임을 밝힌 다수의 연구(신종순, 1990; 심응철, 1992; 심희옥, 1997; Owens, 1994)와 상반된 결과이다. 청소년 초기의 중학생은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불만족과 학업실패에 따른 좌절감, 신체 외모나 신체 능력면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아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한가지는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감각추구성향(오미경, 1997; 이정아, 1995; 이현정, 1997; Newcomb & McGee, 1991)이나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 등(김하연, 오경자, 윤진, 1991; Brown, Clasen, & Eicher, 1986)의 요인을 고려하면, 청소년 초기 비행이 호기심이나 또래 동조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아-

거부가 일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자아-거부는 일탈상황에 노출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일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듯이(Kaplan, Johnson, & Bailey, 1986) 단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 모두 비행을 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이다.

한편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교사관련 자아,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성격적 자아 등 자아존중감의 일부 영역이 비행을 통해 낮아지는 영역으로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은 비행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감소를 경험한다는 McCarthy와 Hoge(1984)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사회적 일탈자라는 낙인 그 자체가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초래하기보다는 비행을 한 청소년들이 일탈자라는 낙인에 대해 자신이 부정적 평가를 내릴 때 자아존중감의 감소를 경험한다(Stager, Chassin, & Young, 1983)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호기심과 동료집단의 영향으로 비행을 하지만 그 이후 내려지는 중요한 타인의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가정과 학교생활, 자신의 성격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부정적 자아상을 확립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낮은 자아존중감이 청년기 우울(김희화, 1998; Rosenberg et al., 1989)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비행후 자아존중감의 감소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다른 부적응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지도 및 선도 과정에서 부모나 교사, 청소년 지도자의 애정과 격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비행과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자아간에는 인과적 영향이 무의미하게 나타나 결과는 비행이 신체능력자아와 직접적인 인과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횡단적 접근에 의한 연구(곽금주와 김근영, 1997; Leung & Lau, 1989)의 결과와 상반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중단적 자료를 통해 밝혀졌고 신체상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상관이 무의미하다는 결과(곽금주와 문은영, 1993)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비행은 외모나 신체 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직접적인 인과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비행과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관계는 자아존중감 영역에 따

라 다양하다는 것과 특히 가정적 자아를 제외한 나머지 자아존중감 영역은 비행의 원인이 아니고 오히려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교사관련 자아,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성격적 자아는 비행을 통해 감소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인간은 보편적으로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피하려고 하므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비행을 하게 되고 이들은 비행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증대를 경험한다는 자아존중감 이론(Kaplan, 1975; Wells, 1978; Wells & Rankin, 1983에서 재인용)을 지지하지 않는다. 자아존중감 영역별 접근을 통해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드물어 감안해 추후 자아존중감 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시간적 경과에 따른 비행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비행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의 학년차이를 분석한 결과 Time 1, Time 2 각각에서 중학교 2학년이 1학년보다 더 많은 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증가에 따른 비행 증가를 보고한 광금주와 문은영(1993)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것은 비행의 안정성을 보고한 Loeber(1982)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비행을 한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비행을 하고 그 정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해지는 청소년 비행의 일반적 특징을 알 수 있다. 비행의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 Time 1에서는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Time 2에서는 남학생의 비행수준이 여학생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학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점차 비행을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심희옥, 1998)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명우, 1997)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행을 많이하는 것으로 보고됨을 감안해 보면 최근 여학생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다할지라도 비행은 아동과 청년기에 걸쳐 일관성 있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비행과 자아존중감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결과를 얻을 수 없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 지도가 혼란스러웠지만, 종단

적 접근을 통해 자아존중감 영역별로 두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가정적 자아존중감의 중요성과 비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지도방법을 구체화시킨 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자아존중감의 영역에 따라 비행과 자아존중감간의 인과적 관계의 유형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비행과 가정적 자아는 호환적 관계로 본다. 친구관련 자아, 교사관련 자아, 학업 및 전반적 자아와 성격적 자아등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비행이 이들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비행과 신체외모 자아 및 신체능력 자아간에는 직접적인 인과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다.

둘째, 청소년 비행은 시간적 경과에 따라 정도가 심해지고 중학교 2학년은 1학년보다 많은 비행을 하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은 비행을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비행과 자아존중감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 이외에 비행을 설명하는 다른 변인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과 종단적 연구로서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 1) 광금주·김근영(1997). 자기지각 검사에 의한 자기개념 연구(Ⅱ): 자기가치감과 우울 및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15-26.
- 2) 광금주·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3) 광금주·윤진·문은영(1993). 한국 청소년 비행 연구의 동향과 심리학적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2-27.
- 4) 권이중(1996).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서울.
- 5) 김두현(1997). 청소년법과 행정, 상영사: 서울.
- 6) 김정원(1993).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하연·오경자·윤진(1991). 청소년의 자아개

- 님, 또래집단에 동조 및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4(2), 199-212.
- 8)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9) 신종순(1990).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심응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심희옥(1997). 아동 후기 초등학교학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국아동학회지, 18(1).
 - 12) 심희옥(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부적응 생활사건,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원과 부적응에 관한 중단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9(2).
 - 13) 오미경(1997).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8(1), 109-123.
 - 14) 유혜경(1986).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이명우(1997). 부산광역시 중·고교생의 비행실태와 예방교육 분석: 청소년 문제와 교육의 과제, 한국교육사회학회 제 120차 학술세미나, 19-50.
 - 16) 이정아(1995). 청소년의 인성특성과 가정환경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이현정(1997).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개인적 변인 및 음란매체 접촉도와 성비행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정유미(1996).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조정문(198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비행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 Brown, B.B., Clasen, D.R., & Eicher, S. A.(1986). Perceptions of peer pressure, peer conformity dispositions, and self-reported behavior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4), 521-530.
 - 21) Edwards, W.J.(1996). A measurement of delinquency differences between a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sample: what are the implications?, *Adolescence*, 31(124), 973-989.
 - 22)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23) Kaplan, H. B.(1976). Self-attitudes and deviant response, *Social Forces*, 54, 788-801.
 - 24) Kaplan, H. B.(1978). Deviant behavior and Self-enhance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253-277.
 - 25) Kaplan H. B., Johnson, R. J., & Bailey, C. A. (1986). Self-rejection and the explanation of deviance refinement and elaboration of a latent structur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2), 110-128.
 - 26) Leung K., & Lau,S.(1989). Effects of self-concept and perceived disapproval of delinquent behavior in school childr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4), 345-359.
 - 27) Loeber, R.(1982). The stability of antisocial and delinquent child behavior: A review, *Child Development*, 53, 1431-1446
 - 28) McCarthy, J. D., & Hoge, D. R.(1984). The dynamics of self-esteem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 396-410.
 - 29) Owens, T. J.(1994).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reciprocal effects of positive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on adolescent proble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391-407.
 - 30) Pope, A.W., McChale, S.M., & Craighead W.E.(1988). *Self-esteem 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Pergamon Press.
 - 31)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1004-1018.
 - 32) Shavelson, R.J., Hubner, J.J., & Stanton,

- G.C.(1976). Self concept: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3), 407-441.
- 33) Stager, S. F., Chassin, L., & Young, R. D.(1983). Determinants of self-esteem among labeled adolescent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1), 3-10.
- 34) Wells, L.E., & Rankin, J. H.(1983). Self-concept as a mediating factor in delinquenc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1), 11-22.